

안민수&박상욱 듀오 리사이틀 열린다

전주 문화공간 이룸, 29일 개최

오는 29일, 전주 문화공간이룸 초청으로 잘츠부르크 라데스테아터에서 동양인 최초로 바그너 '빙황하는 네덜란드인'의 주역 'Hollander'를 맡아 주목받은 베이스바리톤 안민수가 이룸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예술가를 전북특별자치도 관객들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문화공간이룸이 자체 기획한 공연으로, 지역에서 보기 드문 수준 높은 성악·피아노 듀오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문화공간이룸은 그동안 지역의 규모를 넘어서는 기획력으로, 국내외 정상급 예술가들을 꾸준히 초청해 전북특별자치도 공연 생태계의 다양성과 질을 높여왔다. 특히 독자적인 안목으로 엄선한 연주자 섭외와 공연의 완성도 높은 운영은 관객들 사이에서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이번 공연 역시 단순 초청이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문화 향유 환경을 넓히고, 국제적 수준의 클래식 레퍼토리를 지속적으로 소개하려는 이룸의 방향성이 반영된 무대다. 이번 공연의 중심 레퍼토리는 슈만의 대표 연가곡집 '시인의 사랑(Dichterliebe) Op.48' 전곡이다. 사랑의 환희와 상처, 기억과 성찰로 이어지는 내면의 여정을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성악가의 문학적 해석과 피아니스트의 구조적 이해가 정교하게 맞물려야 하는 고난도 레퍼토리다. 지역 공연장에서 이 작품을 전곡으로 감상할 기회는 매우 드물며, 이번 무대는 독일 가곡의 미학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안민수&박상욱 듀오 리사이틀 포스터

1부에서는 피아니스트 박상욱의 솔로로 슈만의 서정적 정서가 펼쳐지고, 이어 두 예술가가 함께하는 가곡 무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2부에서는 '시인의 사랑' 전곡이 하나의 서사 구조로 제시되며, 성악과 피아노의 긴밀한 호흡을 통해 작품의 정수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의 중심에 서는 안민수는 잘츠부르크 라데스테아터에서의 주역 데뷔를 비롯해 체코·오스트리아·독일 등 유럽 주요 극장에서 폭넓은 활동을 이어온 성악가다. 오사카 국제 음악 콩쿠르 우승, Giangiacomo Guelfi 국제 콩쿠르 우승, Gabriela Benackova 국제 콩쿠르 특별상

등 다수의 국제 콩쿠르에서 수상하며 기량을 인정받았다. 가곡 분야에서도 언어의 뉘앙스·음색의 질감·감정선의 구조를 세밀하게 조율하는 해석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피아니스트 박상욱은 매년 문화공간이룸 무대에 올라 지역 관객과 꾸준히 호흡해온 연주자로, Wiener Musikverein, Berlin Konzerthaus 등 세계 주요 홀에서 실력을 증명한 음악가다.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온 피아노 듀오 '신박듀오'의 파트너 신미정은 안민수의 배우자이기도 하여, 이번 공연은 음악적·인적 인연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무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신박듀오 또한 올해 이룸에서의 성공적인 공연을 통해 지역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다.

문화공간이룸 이윤정 이사장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세계 수준의 예술가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룸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공연은 성악과 피아노가 가진 가장 섬세한 예술적 결을 전하는 무대로, 관객 여러분께 깊은 감동을 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리사이틀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정통 독일 가곡 무대를 통해 음악의 깊이를 차분하게 전달하는 자리이자, 성악과 피아노의 실내악적 호흡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공연은 오는 29일 오후 5시 문화공간이룸에서 열린다. 티켓은 전석 4만 원이며, 문화공간이룸 카카오페이 친구에게는 5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예매는 네이버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문의는 전화(063-223-5323) 또는 카카오페이 '문화공간이룸'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진안역사박물관, 내실 있는 운영 빛났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4회 연속 인증기관 선정

진안군에서 운영하는 진안역사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결과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2017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제도 도입 이후 진행된 2017, 2019, 2022, 2025년에서 총 4회의 평가에서 한 차례도 빠짐없이 연속으로 인증기관에 선정된 것으로, 진안역사박물관의 지역사 자료 수집·관리 역할 및 내실 있는 운영이 높게 평가 받았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는 공립박물관 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평가대상은 박물관 등록 후 3년이 지난 공립박물관으로, 인증기간은 3년이며, 인증을 받은 박물관에는 인증서가 발급되고 대외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번 2025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평가대상은 전국 296개 공립박물관으로, 평가는 2022~2024년까지 기간 동안 박물관 설립 목적의 달성도,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자료의 수집과 관리의 충실성, 전시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공적 책임 등을 평가지표로 하여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로 진행됐다.

2025년 평가대상인 전북지역 19개 공립박물관 중 4회 연속 평가인증 박물관에 선정된 5개 박물관 중 하나인 진안역사박물관은 2006년 개관한 진안군 유일의 종합박물관으로, 진안의 역사문화를 종합적으로 전시·교육하고,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개관 후 20여 년 만에 전면적인 새 단장을 통해 9월 4일 재개관하여 많은



관람객의 호응을 받고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유홍준)·진안역사박물관·국립익산박물관(관장 김율립)이 주최·주관해 11월 30일까지 개최하고 있는 2025 국보순회전 <백제명품, 백제문양전>은 보물급 국가유산 전시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진안군에서는 이번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인증기관 선정을 계기로 지역의 공립박물관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 진안의 역사문화를 널리 알리고 군민이 수준 높은 역사문화체험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박물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 마을을 걸으며, 문화를 잇다’ 포럼

전주문화재단, 26일 공유화음실서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공유화음실에서 '전주, 마을을 걸으며, 문화를 잇다'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도시 곳곳에 숨겨진 장소·사람·이야기의 가치를 새롭게 바라보고, 이를 문화적·경제적 자산으로 키우기 위한 전략적 노력으로 마련됐다. 나아가 지역공동체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포럼은 '발견·연결·확장'이라는 단계적 접근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첫 발제를 맡은 최태우 물왕필 CCB 대표는 지역 주민이 발견한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발견'하는 방법과 AI 활용의 중요성을 짚으며 논의를 열어나갈다.

이어 안선우 작가가 로컬 관광 문화자원을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로 '연결'해 방문객 경험을 확장하는 실질적 전략을 제시한다.

전소리 소씨제작소 대표는 지역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창작물의 상품화·유통 활성화 방안을 통해 창작 활동이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제안한다.

이후 진행되는 종합 토론은 이번 포럼의 핵심이다. 성기석 인문공간파사주 대표가 좌장을 맡아 생활문화, 지역 상권, 예술, 관광, 미디어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현실적인 정책 대안과 현장 기반의 실천 과제를 도출한다.

종합 토론에는 △고미술 이후생활문화센터 센터장(지역공동체) △백정진 전주생활문화센터협의회 회장(기점놀이) △한현수 진북생활문화센터 센터장(마을 문화자원) △장태영 동문상인회 수석부회장(전통시장 활성화) △임희성 동문창작소 임주작가 회장(지역 예술인) △안해련 문화관광 해설사(문화관광) △이한수 전북문화관광재단 책임(문화기획) 등 총 7명이 참여한다.

/장은성 기자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 고용 정책포럼 개최

전북여성가족재단은 24일 3층 세미나실에서 '전북 여성의 고용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변화하는 전북지역 산업구조와 고용노동환경의 변화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여성 고용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재민 연구위원(전북여성가족재단)은 전북 지역 지역노동시장 특성 및 여성 일자리 지원기관 실무자 현황 및 정책수요조사를 통한 분석을 통해 고용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황은정(나다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전북 지역 여성 유망직종 및 훈련 수요 자료를 분석해 전북 여성 유망직종을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승현 연구위원, 충북여성재단 강선에 연구위원, 신 향 전북여성가족재단 정책관, 송선화 전북여성가족재단 광역세일센터팀장, 김시연 남원여성세로일하기센터 팀장, (주)이노케이 김웅일 대표이사가 참석해 전북지역 고용노동환경 변화에 따라 전북 여성 일자리 지원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문화재단, 전통한지 예술교육 참가자 모집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은 다음달 10일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들만을 위해 만들어진 비밀문자 '여서(女書)'를 주제로 전통한지 예술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여서'는 중국의 한 지역에서 가부장적 제약으로 글을 배우지 못했던 여성들이 서로의 삶과 감정을 나누기 위해 만든 독창적 문자다. 웃감을 수를 놓거나 지수 문양으로 새겨 활용한 이 문자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여성들이 '자신만의 언어'로 애환과 기쁨, 연대의 이야기를 이어온 소통 방식이었다.

이번 교육은 여서가 지닌 시각적 특징과 서사를 전통한지 예술 창작으로 확장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참가자들은 바느질·채색·스케치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여서 문자의 정서를 자신만의 메시지로 재창작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지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오는 12월 3일까지 전주천년한지관 누리집(jmh.kr)에서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